

광주 동구 푸른길 일대에서 '책놀이' 하자

'지역과 책' 주제 9월30일~10월2일 한국지역도서전 천인독자상·특별전·심포지엄·공연·북토크 등 행사

지역 도서와 출판물은 다양성과 문화 생태계를 지키는 보루와도 같다. 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문화와 역사를 충실히 담아내는 출판물과 도서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과 책을 매개로 하는 전국적인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광주시 동구와 한국지역출판연대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2일까지 푸른길 일대에서 한국지역도서전(지역도서전)을 개최한다. 최근 동구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동구 인문학당에서 지역도서전 출범식 및 조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입력 동구정장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황종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수걸 한국지역출판연대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지역 내 출판계와 문학계 전문가 11명이 위촉됐다.

'지역과 책, 서로를 보듬다'를 주제로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지역도서전은 천인독자상, 특별전, 심포지엄, 책놀이 마당, 공연, 북토크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가장 눈에 띄는 행사는 지역 출판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지역출판대상 천인독자상'(9월 30일 산수문화마당 특별무대). 출판연대가 마련한 천인독자상은 일반 독자 1000명이 1만원 씩을 내 올해의 지역출판대상자를 선정해 상상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을 모아 책을 구매함으로써 지역 출판을 격

려하는 취지다. 지난 2017년 1회 대회 때부터 이어져 온 행사로, 천인독자상 수상작은 역대 대상도서와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개최도시 특별전은 광주와 동구를 모티브로 한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책이 담은 5·18민주화운동', '동구의 시간을 걷다'가 그것.

전자는 동구 인문학당이 수집한 5·18 관련 도서 400여 종 전시가 6개 부스에서 펼쳐지며 후자는 동구 기록화 사업과 생애출판사업 발간도서 20여 종과 사진 패널 등을 선보인다.

전국지역출판사가 발간한 도서 4000여 종을 볼 수 있는 '책책대로'도 관심을 끈다. 8개 부스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온 나라 지역 책장이 열렸네'를 떠올리게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국잡지연대가 발간한 1000여 종의 잡지가 3개 부스에서 전시되며 '책으로 잇는 나와 우리'를 주제로 독서 공모전, 인권작품 공모전 결과전시회 등도 열린다.

지역출판 관련 책 심포지엄은 향후 지역출판의 방향을 가능할 수 있는 행사다. 한국출판학회 주관으로 10월 1일(오후 3시) 동구 인문학당에서 지역출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다.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책놀이마당은 말 그대로 책을 매개로 다양한 즐거움을 찾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광주극장에서 진행되는 '영화 속 책이야기'는 책을 담은 영화 감상과 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지난 2021년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한국지역도서전 장면. 코로나19로 행사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프로그램이다. 푸른길에서 펼쳐지는 '책, 책, 책을 이야기하다'는 광주 작은 책방 또는 1인 독립출판사가 주축이 돼 진행되며 '책 펴는 라디오'(푸른길 본 무대)는 출판과 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된다.

광주 작은 서점과 1인 독립출판사의 책을 살 수 있는 '북마켓'(푸른길)을 비롯해 책과 관련된 문구 및 책갈피, 책표지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북아트마켓'(푸른길)도 볼거리다.

이밖에 개성있는 장서표를 만들어 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유도하는 '나만의 장서표 만들기', 자신의 서재를 소개하고 사연과 사진을 전시하는 '나의 서재를 소개합니다'도 예정돼 있다.

한편 2017년 제주에서 첫 행사가 시작된 지역도서전은 이후 경기 수원(2018년), 전북 고창(2019년), 대구 수성(2020년), 강원 춘천(2021년)에서 개최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정진 '답문류편' 완역 기념 14일, 호남문헌 연구 학술대회

노사 기정진(1798-1879)은 조선 말 성리학을 대표하는 학자다. '답문류편'은 그가 지인·제자들과 주고 받은 편지 가운데 학문과 사상의 골간을 이루는 내용을 사후에 문인들이 모아 편집한 책이다.

노사 기정진의 '답문류편' 완역을 기념하는 제3회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가 열린다.

오는 14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답문류편을 통해 본 노사학파의 학설 계승 의의'를 주제로 진행된다.

1부는 나상필 일반연구위원(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회로 박학래 교수(군산대)가 '노사학파 문인의 기정진 이기철 계승'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형성 교수(전남대)의 '답문류편을 통해 본 노사학파의 심성론 고찰', 김봉근 교수(원광대)의 '노사학파의 의리론과 예학'이 이어진다.

2부는 김경호 교수(전남대)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향준 교수(전남대), 정영수 교수(조선대), 조일형 연구위원(한국학중앙연구원)이 참여해 토론을 펼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평화도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정취윤 '아시아 골목...' 최우수상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이 공모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정취윤씨의 '아시아 골목 갤러리 조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원포럼은 최근 조성사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정취윤씨의 '아시아 골목 갤러리 조성'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은 이혜나씨의 '문화문화공간 조성' 등 2명이, 장려상은 '문화예술장작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골목 공간 플랫폼 건립 제안'을 제안한 김다은씨 등 5명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상금 70만원, 우수상은 상금 50만원, 장려상은 상금 20만원이 주어졌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에는 80여건이 접수됐다. 수상작 이외에도 조성 사업 제안과 관련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 향후 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취윤씨는 "골목 갤러리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밝은 골목을 선사하고, 골목갤러리를 찾는 관광객으로 인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시아 골목 갤러리 조성'에 대한 안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여름 밤 작은 축제 16·23일 'ACC 나잇'

해가 저문 저녁 시간대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ACC)의 밤 풍경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ACC는 야경과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한여름 밤 작은 축제를 펼친다. 일명 'ACC 나잇'(16·23일 오후 7시30분).

이번 ACC 나잇은 '임무 달성 형식의 투어'와 '퓨전국악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는 야외 공간을 다니며 퀴즈를 통해 꽃과 나무의 숨겨진 의미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며 후자는 꽃을 주제로 한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선 크로스오버 밴드 새날이 동서양을 넘나드는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예약 신청은 오는 8일부터 ACC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국악 공연

전남도립국악단 '그린 국악 2' 16일부터 무안 남도소리올림픽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 '그린 국악' 시즌 2를 시작한다.

오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남도소리올림픽(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22)에서 열리는 그린국악은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올 상반기 시즌 1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전남도립국악단은 오는 16일부터 '가무악회(노래·춤·연주·연회)'로 대변되는 국악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음악적, 장르적 한계를 두지 않는 수준 높고 세련미 넘치는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노래와 춤, 연주, 연희로 이어지는 시즌1의 프로그램 공식을 깨고, 노래·춤·연주·연회 중 한 장르를 공연마다 주인공으로 설정해 무대를 구성한다. 보다 깊이 있고 다이나믹한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늘면서 류형선 예술감독

작곡의 국악동요 '모두 다 꽃이야', '더불어 숲을 이루자', '내 똥꼬는 힘이 좋아' 등 어린이 작품들도 다수 선보이며, '어름사니(줄판)와 줄타기', '호남 판굿' 등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과 새로이 선보이는 작품들로 무대를 채운다.

한편 전남도립국악단은 그린국악 시즌 2 종료 후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시즌2 '별 일 없는 하루, 특별한 시간(이하 별특시)'을 개최한다. 지난 2020년도에 첫 선을 보인 '별특시'는 국악이라는 예술을 매개로 인간의 언어부터 문학, 역사, 철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공연을 펼치는 장기 프로젝트다. 오는 9월 17일부터 4주간 방송인 김제동, 시인 김용택, 물리학자 김상욱, 역사학자 심용환 등이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관람료 1만원. 문의 061-981-6923.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그린국악 시즌 1 공연모습.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